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조영신 과장, 김성용·김정운 사무관(02-2110-5456)

지식경제부장관, 에너지현장 방문·점검

-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행점검 및 단속직원 격려
- 석유공사 용인비축기지 비축현황 및 점검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2월 23일(목) 성남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용인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용인비축기지를 방문하여,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이행상황 및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, 최근 이란사태로 인한 석유수급 불안에 대비 전략비축유 저장시설 현황을 점검함

□ 가짜석유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 단속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

o 이 자리에서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조직화·첨단화된 가짜석유 판매 수법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

o 강승철 이사장은 금년에는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, 보다 더 근본적인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유통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함

□ 장관은 "지난해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사고로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"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석유관리원 직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

o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에 대한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, 금년을 '가짜석유 제로화의 해'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,

o 정부에서도 가짜석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

□ 용인 비축기지에서는 전략비축유 저장현황을 점검

o 강영원 사장은 비축기지 안전관리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고 있으며, 비상상황 발생시 전략비축유가 제때에 방출될 수 있도록 모든 비축기지가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보고함

○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과 국제사회의 핵개발 관련 이란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 되어가면서 석유수급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어

-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석유비축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, 그 간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비축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* 용인비축기지: 저장용량 250만배럴, 탱크 11기(휘발유 115만/6기, 경유 135만/5기), 최대출하량 5천배럴/시간, 송유관 26.2km로 수도권 석유제품 공급에 중요한 역할

* 석유공사는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3,000만배럴 비축(용인비축기지 200만배럴)

[참고자료]

□ 회사명 : 한국석유공사(사장 강영원) 용인지사

o 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호동 517-2

□ 조직 및 인원 : 3개팀 25명

□ 연 혁

o 지상탱크 건설('94.1.~98.5.) → 용인지사 개소('97.10.)

□ 시설현황

o 부지면적 : 1,181,330㎡

구 분	유 종	저장용량	탱크기수	비 고
지상탱크	휘발유 경유	115만배럴 135만배럴	6기 5기	내경 41m × 높이 20m 내경 55m × 높이 20m
계		250만배럴	11기	

o 입출하시설 : 입출하대 17기 / 송유관로(16", 26.2㎞)

- 최대출하량 : 입출하대(5,100배럴/hr) / 송유관(6,000배럴/hr)

o 방호시설 : 외각펜스 2.5km, CCTV 10대, 자력식감지기, 초소 7개소

